



4월 4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4.23	4.16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248.53	1,238.71	↑ 0.79	↑ 13.10	762.47 '20/05/04	1,268.28 '21/04/20
인니	자카르타종합	6,016.86	6,086.26	↓ -1.14	↑ 0.63	4,496.06 '20/04/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47,878.45	48,832.03	↓ -1.95	↑ 0.27	30,028.98 '20/05/18	52,154.13 '21/02/15
중국	상해종합	3,474.17	3,426.62	↑ 1.39	↑ 0.03	2,808.53 '20/04/24	3,696.17 '21/02/19
	심천종합	2,298.55	2,220.22	↑ 3.53	↓ -1.32	1,730.74 '20/04/29	2,468.66 '21/02/19
홍콩	H	11,067.84	11,027.51	↑ 0.37	↑ 3.07	9,281.52 '20/09/29	12,228.63 '21/02/17
	항셱	29,078.75	28,969.71	↑ 0.38	↑ 6.78	22,930.14 '20/05/22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186.10	3,198.62	↓ -0.39	↑ 10.88	1,889.01 '20/04/24	3,220.70 '21/04/20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4.23	4.16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40	2.42	↓ -2.00	↓ -18.30	2.20 '21/01/15	3.60 '20/04/23
인도네시아	6.44	6.49	↓ -5.90	↑ 54.90	5.89 '20/12/30	8.12 '20/05/06
인도	6.04	6.09	↓ -4.90	↑ 17.40	5.75 '20/05/28	6.25 '21/03/10
중국	3.18	3.16	↑ 1.60	↑ 2.90	2.48 '20/04/29	3.36 '20/11/19
한국	2.05	2.02	↑ 2.30	↑ 32.30	1.28 '20/07/30	2.16 '21/03/18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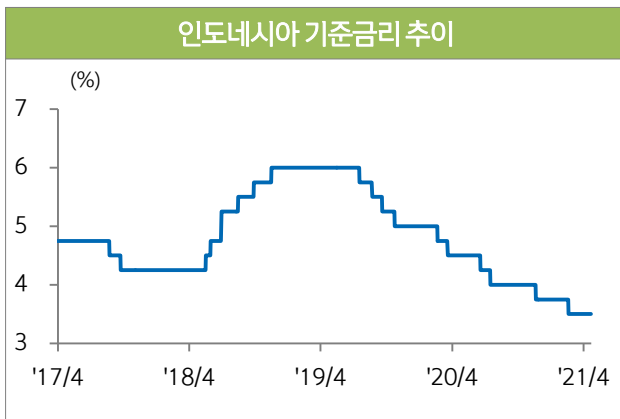
구분	4.23	4.16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61.00	23,062.00	↓ 0.00	↓ -0.16	22,970.00 '21/02/08	23,502.00 '20/04/24
달러-루피아 (IDR)	14,525.00	14,565.00	↓ -0.27	↑ 3.38	13,878.00 '20/06/05	15,445.00 '20/04/28
달러-루피 (INR)	75.02	74.36	↑ 0.89	↑ 2.67	72.33 '21/02/24	76.46 '20/04/24
달러-위안 (CNY)	6.50	6.52	↓ -0.37	↓ -0.47	6.43 '21/01/29	7.17 '20/05/27
달러-원 (KRW)	1,117.83	1,116.13	↑ 0.15	↑ 2.88	1,081.81 '20/12/04	1,243.91 '20/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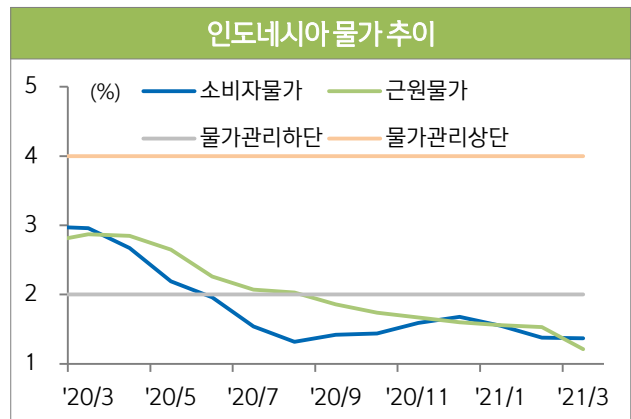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4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2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음.** 3월 인도네시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1.37% 상승하였고,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도 1.21%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물가 관리범위인 2~4%를 하회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5천명 내외에서 추가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수출 및 제조업 부문의 개선에 비해 부진한 내수 소비 부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 동결을 선택하였음. **미국 채권 금리의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 전환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채 금리도 하락으로 전환되었고, 외국인들도 4월에는 인도네시아 국채를 순매수 하면서 채권 시장이 안정되는 분위기에서 루피아화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점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인도네시아 QR표준결제(QRIS)의 한도를 5월부터 200만 루피아에서 500만 루피아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자 금융을 통한 거래도 확대할 수 있게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소비 및 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발표하였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금리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년대비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신용 창출이 활발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일부 금리 인상 신흥국들과는 달리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지속하면서 경기 부양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인도가 1일 코로나19 확진자수 30만명을 넘어서면서 통제 불가능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신흥국에 대한 심리 약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양호한 수출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대적 선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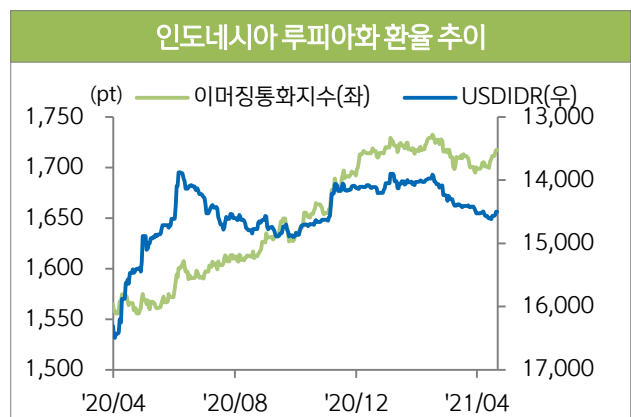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주요 뉴스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21년 경제성장률 전망 범위를 4.1~5.1%로 하향 조정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정 부분 이동 제한 등이 병행되고 있어 경제 반등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고 중앙은행은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2021년 성장률 전망범위를 하향 조정하였음.

- ▶ 중앙은행은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4.3~5.3% 범위에서 4.1~5.1% 범위로 하향 조정하였음. 하향 조정은 주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차질이 예상보다 길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3월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진행하는 국가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중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였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중앙은행 총재는 말하였음. 국내 소비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소비자 기대지수, 소매 판매 등의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전의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임.
- ▶ 중앙은행 총재는 국가 경제가 올해 4분기까지 개선 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수출 실적의 개선과 재정 정책을 통한 부양의 지속, 그리고 PMI 개선 세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투자 확대 등이 개선 세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았음. 총재는 몇몇 요인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팜원유, 금속광물, 차량 판매 등의 생산 및 수출이라고 하였음. 실제로 인도네시아 수출은 중국 등 교역국에서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빠른 개선 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 총재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정 부양 정책이 사회 보조나 상품 소비, 자본 지출 등으로 나타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민간 부분을 자극해주고 있다고도 판단하였음.



중앙은행 은행권 서베이 결과 : 2분기 대출 태도 개선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은행권에서는 2분기에 1분기보다 가계 및 기업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맞춰 은행권들의 대출 태도도 완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고 중앙은행 조사 결과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의 개선과 경기 반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간 부문의 대출 수요도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임

- 중앙은행이 조사한 서베이 결과 2분기에 소비, 운전대, 시설대 등의 목적으로 대출 할당이 늘어날 것이라고 조사되었음. 신규 대출 할당에 대한 기대감은 1분기보다 30.4% 증가하였다고 조사되었음.
- 2분기 은행들의 대출 의향 측면에서도 1분기보다는 더 유연한 대출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기존보다 신용프리미엄 측면이라던가 담보, 대출 요구조건 등에 대해서도 더 완화된 태도를 나타낼 것이라고 조사되었음. 이를 통해 계산된 표준 대출 의향 지표는 2.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21년의 대출 증대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대출 성장률은 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앙은행은 발표하였음. 중앙은행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고 경제 환경이 개선되면서 대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인니 정부, 수도 이전 관련하여 올해 1.7조 루피아 배정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수도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바뻐지만, 올해부터는 국가 예산을 배정하여 수도 건설 계획 및 초기 설정을 위한 국가 부처들 및 산하기관들의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동부 칼리만탄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1.7조 루피아를 배정하였다고 재무부에서는 말하였음. 배정된 금액은 각 부처 및 정부 산하 기구들에 나누어 할당될 예정임. 행정부, 교통부, 국토계획부 등에 8천억 루피아를 배정하고, 국토 개발 계획 펀드 및 정부 산하 기관들에 9천억 루피아를 배정하는 방향임.
- 정부 부처들과 산하기관들은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도의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개별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면서 수도 이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 한편, 대통령 대변인 Fadjoel Rachman은 정부의 신 수도 개발 정부 예산이 국가 예산 하에서 집행되는 재정 예산 500조 루피아 가운데 1%를 차지하는 정도라고 하였음. 잔여 필요 자금들은 다양한 대체 자금 조달 원천을 바탕으로 조달될 것이라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에 새로운 수도의 건설과 관련하여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국가 개발 계획위원회는 2024년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에는 새로운 수도로 이전을 완료할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인니, 1분기 재정적자 GDP의 0.82%



❖ 요약 및 시사점

1분기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는 GDP대비 0.82%를 기록하였음. 1분기에는 재정지출이 연간 예상치 대비 19%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소폭의 증가에 그쳤지만 수출 부문 및 원자재 부문의 생산/수출 증가로 관세 및 세외 수입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의 규모를 일정 부문 만회 해주었음

- 인도네시아의 2021년 1분기 재정 적자는 144.2조 루피아를 기록하여 GDP대비 0.82%를 기록하였음. 1분기의 재정적자는 연간 재정 적자 예상치 GDP대비 5.7%(1,006.4조 루피아)의 14.3%를 차지하였음. 2월말까지 재정 적자는 GDP대비 0.6%였지만, 3월에 추가적으로 0.22%가 증가한 것임.
- 재정적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재정 지출이 523조 루피아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2.4조 루피아에 비해 15.6%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임. 재정 지출 집행률은 연간 재정 지출 예상금액 2,750조 루피아의 19%였으며, 523조 루피아의 금액 가운데 350.1조 루피아가 중앙 정부의 지출로 전년의 277.9조 루피아 대비 26% 증가하였음.
- 한편, 재정 수입의 경우에는 올해 3월까지 378.8조 루피아를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376.4조 루피아에 비해서 0.6% 증가하는데 그쳤음. 재정 수입은 세수수입이 전년대비 5.6% 감소한 228.1조 루피아를 기록하여 연간 예상금액 1,229.6조 루피아의 18.6%에 그쳤음. 관세 수입 등이 62.3조 루피아로 연간 예상액 215조 루피아의 29%를 기록하였으며 관세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2.7% 증가하였음.
- 세외 수입의 경우 88.4조 루피아로 연간 예상치 299.1조 루피아의 29.6%이며, 전년대비 8.4% 증가하였음.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 지원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석 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 문제의 해소와 함께,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 배출 감소 목적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3%까지 늘린다는 계획으로 빠르게 태양광 발전 용량을 늘리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가지 전략들을 대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및 LPG의 수입을 중단하고 태양광 프로젝트를 늘리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에너지 광물 자원부에서는 발표하였음. 2021년에 원유 수입은 1억 1,840만 배럴로 22.97억 달러 수준에 달하며, LPG는 702만 MT로 톤당 411달러의 수입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원유와 화석 연료의 수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경상수지 적자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음.
- 화석 연료의 수입을 중단해가는 결정은 인도네시아가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온실 가스 배출을 줄기기로 한 것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방향임.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현재의 11.2%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3%로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음.
- 에너지 광물 자원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량은 10,467 MW(메가와트)이며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발전이 3.6MW, 풍력 발전이 154.3MW, 태양광이 153.8MW, 바이오 에너지가 1,903.5MW, 지열 발전이 2,130.7MW, 수력 발전이 6,121 MW임.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환경 친화적인 발전 용량을 24,000MW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35년까지는 38,000MW를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태양에너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PLTS)를 기존에 석탄 발전으로 운영되던 지역과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 지붕형 태양광 발전, 그리고 스팀에 기반한 발전소(PLTU)를 전환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East Nusa Tenggara 지역의 Sumba 섬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매년 1,800MW의 발전을 해서 국가 평균을 넘는 25%의 태양광 사용 비율을 창출하는 것을 시작하였음. Sumba 섬의 태양광 집적도는 일간 4.8KWh수준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50,000MW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에너지부에서는 설명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인도네시아, 화석 에너지를 금지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경제 부문 장관들도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책을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라는 방향으로 잡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달성과 글로벌 탄소 중립의 달성을 위한 방향에 맞춰 경제 및 에너지를 전환해 가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음.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과제에 동참하여 투자 및 정부 지원도 방향을 맞추고 있음

- 해양 및 투자 조정부 Luhut Binsar Pandjaitan 장관은 화석 에너지원의 사용을 빠르게 중단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그는 대통령도 인도네시아가 전세계와 친화적이고 녹색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기업과 사업체들이 환경 친화적인 서비스와 제품들이 폭넓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음.
- 또한 그는 서로가 인도네시아를 Net-Zero 탄소배출 및 탄소 중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목표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하였음. 인도네시아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대표적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하였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는 예정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의 달성을 보다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진행해 갈 것이라고 하였음.
- 이에 호응하여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suharso Monoarfa 장관도 인도네시아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45, 2050, 2060, 2070년의 타임 스케줄 별로 여러가지 대응 및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음.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시티그룹의 글로벌 소매 금융 사업 조정으로 인니, 말레이시아도 영향



❖ 요약 및 시사점

시티은행 그룹은 글로벌 소매금융 사업을 축소하고 자산관리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중국, 인도, 대한민국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역에서도 소매 금융 사업을 철수하게 되는 것임. 사업을 매각,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철수 스케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음

- 시티은행 그룹은 미국 경제가 강한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 13개 국가에서 소매 금융 사업 철수를 발표하였음.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시티은행 그룹의 손익은 투자은행 부문과 트레이딩 사업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여서 39억 달러의 총당금 설정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적을 거뒀음. 시티은행 그룹의 1분기 손익은 79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3배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양호한 성적에도 시티은행 그룹은 글로벌 소매 금융 부문을 축소하면서 초점을 자산관리 부문에 맞추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중국, 인도 및 11개 국가의 소매 금융 부문에서의 철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경쟁을 하기에 충분한 규모를 갖추지 못 하였다는 판단이며, 자산 관리 분야에서의 성장 기회가 소매 금융보다 더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서 기인함. 이에 따라 시티은행 그룹은 소매금융 사업과 관련한 글로벌 사업을 싱가포르, 홍콩, 영국, UAE 4개국에 집중하게 됨. 2020년말 기준 시티은행 그룹의 글로벌 소매 금융 사업은 1,239억 달러의 예금 규모와 6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었음. 이번 소매금융 사업 철수가 이뤄지는 곳은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임. 시티은행 그룹은 아시아 지역에서 200여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철수 발표에 따라 즉각적으로 지점들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음. 지점수는 점진적으로 시티은행 그룹이 사업을 매각, 정리하는 것에 따라 축소되어 갈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 인도 외에 시티은행 그룹이 소매금융 사업을 정리하는 국가는 호주, 바레인,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대만, 태국, 베트남임.